

히로카와라

이 계곡에서 탁 트인 잔잔한 구간은 생명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연못에는 개구리와 도롱뇽, 수생 곤충이 서식하며, 다리 아래에는 기쿠치 계곡에 두 종류밖에 없는 물고기 중의 하나인 산천어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다리의 상류 쪽에서는 녹색의 민물 김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 민물 김은 옛날부터 먹어왔으며, 기쿠치 계곡에서 채취되는 민물 김은 특히 맛있다고 여겨졌다. 에도 시대(1603~1867 년)에는 구마모토번의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가 에도의 쇼군에게 지역의 민물 김을 헌상했다고 한다. 현재 민물 김은 상당히 귀해졌으며 기쿠치 계곡은 민물 김이 자라는 드문 곳 중 하나다.